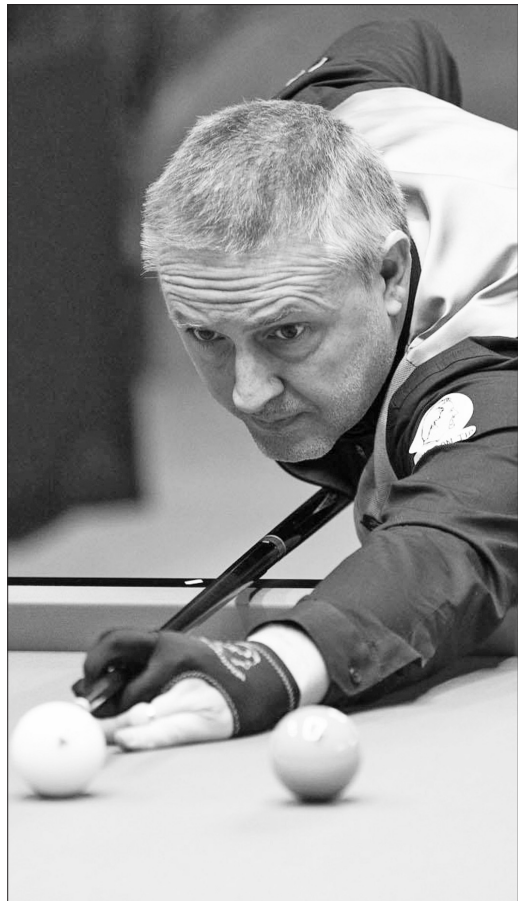




쿠드롱



조명우



허정한



김행직



최완영

당구 톱랭커 집결… 광주서 세계 3쿠션 최강자 가린다

오늘부터 9일까지 빛고을체육관에서 20개국 150여명 참가

총상금 2억원·랭킹포인트 80점…쿠드롱·조명우 등 승부

세계 캐롬 3쿠션 최정상급 선수들이 사상 최초로 광주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

2일 광주당구연맹에 따르면 ‘2025 광주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이 3일부터 9일까지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은 세계랭킹 1위부터 14위까지의 톱랭커가 모두 출전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캐롬 3쿠션 당구 대회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꾸준히 한국에서 개최, 17번째를 맞은 이 대회가 광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 중심이었던 국제대회 개최 구조를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과 스포츠 저변 확대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의 의미는 더욱 크다.

세계캐롬당구연맹(UMB)·아시아캐롬당구연맹(ACBC)이 주최하고, 대한당구연맹(KBF)과 광주당구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20개국 1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우승 상금과 랭킹포인트를 노린다.

총상금 2억여원 규모인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80점의 랭킹 포인트가 주어진다. 준우승자에게는 54점, 공동 3위 36점, 공동 5위 26점 등이 돌아간다. 대량의 포인트가 걸려있는 만큼, 세계랭킹 100위권 선수들에게는 순위 싸움에 중요한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4대 천왕’이라 불리는 프레데리크 쿠드롱(세계랭킹 9위·벨기에), 에디 맥스(세계랭킹 1위·벨기에), 토브 브롬달(세계랭킹 21위·스웨덴), 딕 아스퍼스(세계랭킹 3위·네덜란드)가 한국 팬들 앞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3쿠션 월드컵 우승 횟수에서 브롬달은 46회로 역대 최다 기록 보유자다. 아스퍼스(32회)와 쿠드롱(21회), 맥스(14회)가 차례로 뒤를 잇는다. 국내 선수들도 이들과 함께 우승 트로피 경쟁을 벌인다.

세계랭킹 2위 조명우(실크로드시엔타-서울시청), 허정한(세계랭킹 11위·경남당구연맹), 김행직(세계랭킹 13위·전남-진도군청), 최완영(세계랭킹 119위·광주당구연맹) 등이 그 주인공이다. 먼저 주목할만한 선수는 통산 3번째 월드컵 우승에 도전하는 조명우다.

조명우는 최근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25 청두

월드게임 남자 캐롬 3쿠션’ 결승에서 이집트의 사메 시돔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월드컵은 올림픽 종목이 아닌 스포츠 종목들이 모여 4년마다 치르는 국제 종합경기대회로, 그동안 한국 당구는 ‘당구여제’ 김기영이 은메달 2개를 따낸 바 있다.

이번 우승으로 조명우는 대륙선수권·월드컵·세계선수권·월드게임을 모두 제패하는 ‘3쿠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는 한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다니엘 산체스와 딕 아스퍼스, 마르코 자네티에 이어 네 번째 기록이다.

또 다른 선수로는 ‘당구천재’ 김행직이 눈에 띈다. 이 대회 통산 3회 우승을 달성한 김행직은 지난 2007년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세계 주니어 3쿠션 당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다.

그는 2010·2011·2012년 연속으로 우승하며 세계 주니어 3쿠션 당구선수권대회 3연패를 달성하

기도 했다. 이후 2015년 아시아 3쿠션 당구선수권 대회에서 역대 최연소 아시아 챔피언에 오르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당구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는 3~5일 예선전 1~3라운드, 6일 예선전 4라운드·본선 조배정, 7일 본선 32강 조별예선, 8일 본선 16강~8강 토너먼트가 열린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4강전부터 결승전은 마지막 날인 9일 진행된다.

광주당구연맹 관계자는 “임원들의 적극적인 유치 홍보 활동과 관심으로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이 사상 최초로 광주에서 열리게 됐다”면서 “이번 대회가 성공적인 국제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SOOP을 통해 전 경기가 생중계되며, 전 경기 티켓 판매는 플랫폼 스포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제주 2-0 완파…조기 잔류 ‘청신호’

신창무 선제골·프리드온슨 빠기골

13승 9무 13패 승점 48점 리그 7위



프로축구 광주FC가 제주를 꺾고 7위에 오르며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을 키웠다.

광주는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SK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35라운드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광주는 13승 9무 13패 승점 48점을 기록, 리그 7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앞으로 파이널 라운드 종료까지 남은 경기는 단 3경기. 이날 경기 전 기준 10위 수원FC(승점 38점)와는 뒤집히기 어려운 격차가 생겼다. 이로써 광주는 1부 리그 잔류가 사실상 확정되는 그림이다.

이날 경기에서는 마철준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선수단을 이끌었다. 이정호 감독은 직전 경기인 안양전에서 엘로카드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결장했다.

광주는 이날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헤이스와 박인혁이 최전방에 이름을 올렸다. 중원은 정지훈, 유제호, 이강현, 신창무를 배치했다. 후방은 이민기, 진시우, 변준수, 조성권이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김경민이 꼈다.

경기 전반전은 상대의 우세였다. 제주는 전반 볼 점유율 58%를 가져갔고, 슈팅 8번과 유효슈팅 5번을 기록했다. 반면 광주는 단 한 번의 슈팅도 만들지 못했다.

전반 8분 유제호가 상대 페널티박스 좌측에서 율린 크로스를 헤이스가 헤더로 연결했으나 상대 골키퍼 품에 안겼다.

전반 10분에는 광주 진영 인근에서 치열한 볼 경쟁이 벌어졌고, 상대 남태희가 날린 슈팅을 김경민이 쳐냈다.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SK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35라운드 경기에서 광주FC 유제호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이 쳐냈다.

김경민은 이후에도 철벽같은 모습을 선보였다. 16분 상대 오재혁 슈팅과 19분 임채민의 헤더를 모두 막아냈다. 특히 전반 추가시간에는 승부의 균형을 지키는 선방이 나왔다. 광주 진영 인근에서 흘러나온 볼을 상대 남태희가 가로챘고, 이어진 단독 찬스에서 슈팅을 날렸다. 하지만 이 공을 김경민이 쳐내면서 실점 위기를 넘겼다.

결국 양 팀 모두 득점 없이 0-0으로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전 시작 후 광주는 정지훈 대신 하승운을 투입,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후반 26분에는 박인혁과 이민기 대신 프리드온슨과 심상민이 투입됐다. 기다리던 첫 골은 후반 33분 터졌다.

상대 진영 인근에서 받은 헤이스의 패스를 신창무가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 그대로 골망을 갈랐다. 이날 광주의 첫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진 것. 기세를 탄 광주는 후반 45분 프리드온슨이 빠기 골까지 터트리면서 2-0 승리를 따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고지원, 고향 제주서 에쓰오일 챔피언십 ‘우승’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

고지원 (사진) 이 고향 제주에서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2승을 챙겼다.

고지원은 2일 제주도 제주시 엘리시안 제주(파 72·6816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에쓰오일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하나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적어낸 고지원은 2위 서교림(15언더파 273타)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8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정규 투어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던 고지원은 약 3개월 만에 트로피를 추가했다.

KLPGA 투어 3승을 거둔 고지원의 동생인 고지원은 2023년 KLPGA 투어에 데뷔했고, 이번 시즌 ‘조건부 출전권자’로 뛰다가 삼다수 마스터스 우승으로 2027시즌까지 시드를 확보한 바 있다.



첫 우승 이후에도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내던 고지원은 다시 고향인 제주에서 우승하며 시즌 2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 2라운드 단독 선두로 도약한 뒤 3라운드에서도 3타 차 선두를 달

린 고지원은 이날 전반 버디 4개로 4타를 줄이며 2위와 격차를 4타로 벌려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강한 바람이 이어진 후반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고지원은 13번 홀(파4)과 14번 홀(파5) 연속 버디로 2위 서교림에게 5타 차로 앞섰다.

고지원은 15번 홀(파4)에서 샷 실수로 첫 보기를 써내 16번 홀(파3) 버디를 잡아낸 서교림에게 쫓기긴 했으나 결과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고지원과 서교림에 이어 현세린과 전예성, 최은우가 공동 3위(11언더파 277타), 이다연과 장수연이 공동 6위(9언더파 279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KIA, 코칭스태프 보직 확정

고영민·김지용 등 영입…훈련 합류

KIA타이거즈가 2026시즌을 이끌어 갈 코칭스태프 보직을 확정했다.

1군은 이병호 감독을 중심으로 손승락 수석코치와 이동걸·김지용 투수 코치, 김주찬·조승범 타격 코치, 박기남 수비 코치, 고영민 작전주루 코치, 김연호 외야수비·주루 코치, 이해창 배터리 코치로 구성된다.

김지용 코치는 두산베어스에서 KIA로 합류했고, 올해까지 롯데디자인츠에 있었던 고영민 코치 역시 자리를 옮겼다.

퓨처스팀은 진갑용 감독과 타카하시켄·박정배 투수 코치, 홍세완 타격 코치, 박효일 작전주루 코치, 김민우 수비 코치가 선수단을 지도한다. 또 잔류군은 김석연 총괄 코치와 이상화 투수 코치, 최희섭 타격 코치, 서덕원 재활군 코치로 구성을 마쳤다. 퓨처스 배터리 코치는 추후 영입할 계획이다.

새로 합류한 얼굴은 타카하시 켄과 박정배 투수 코치다. 타카하시 켄 코치는 현역 시절 실업팀과 히로시마 도요카프, 뉴욕 메츠 등에서 활동했던 선수 출신의 베테랑 코치다. 박정배 코치는 키움 두산에서 투수 코치와 볼펜 코치 등을 거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도자로는 KIA에서 3번째 유니폼을 입게 됐다. 개편된 코칭스태프는 3일부터 시작되는 마무리캠프와 비시즌 훈련에 합류해 본격적인 선수단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